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성간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성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윤 자 원

이성간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성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윤 자 원

인 준 서

윤자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성 고정관념과 이성간의 갈등대처 행동 간의 상관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통하여 전국의 남녀 대학생 39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자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 척도,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척도, 성 고정관념 척도, 갈등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Pearson 상관, 변량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몇 개의 변인에서 남녀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리적 독립이 더 높았으며, 성 고정관념도 높았다. 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갈등 대처시 회피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둘째, 모든 변인들은 갈등대처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지각한 부모의 갈등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많았다. 여학생들은 지각한 부모 갈등이 높을수록 이성적 대처를 적게 하였고, 회피 행동을 많이 하였다. 또, 여학생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 행동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학생은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과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 남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외부도움 요청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이성적 갈등 대처 행동을 덜 하고, 회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남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증가하였고, 여학생들의 외부도움 요청이 증가하였다. 교제기간이 길수록 여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증가하였다.

셋째,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남녀 모두 성 고정관념이었다. 남학생의 외부도움 요청 행동은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잘 설명하고 있으며, 회피 행동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잘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여학생의 외부도움 요청 행동은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회피 행동은 성 고정관념이 잘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교제기간이 잘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남녀 대학생의 갈등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았으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 고정관념이 성인기 초기 대학생들의 이성 관계에서의 갈등대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 고정관념이 갈등대처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데, 이는 갈등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이론적 배경 6
 - 1) 갈등대처행동 6
 - 2) 부모의 갈등과 갈등대처행동 9
 - 3)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행동 11
 - 4) 성 고정관념과 갈등대처행동 14

II. 연구 목적 및 가설

- 1. 연구 목적 16
- 2. 가설 16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18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8
- 2. 측정 도구 19
 - 1)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 척도 19
 - 2) 심리적 독립 수준 척도 20
 - 3) 성 고정관념 척도 22
 - 4) 갈등대처행동 척도 22
- 3. 자료분석 24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5

2. 각 변인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26

3.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갈등대처행동31

4.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행동32

5. 성 고정관념과 갈등대처행동34

6. 교제기간과 갈등대처행동36

7.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 심리적 독립 및 성 고정관념36

8.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 심리적 독립 및 성 고정관념 및 교제기간과
갈등대처행동38

V. 논의 및 제언45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척도 문항과 신뢰도 계수	20
<표 2> 심리적 독립 척도 문항과 신뢰도 계수	21
<표 3> 성 고정관념 척도 문항과 신뢰도 계수	22
<표 4> 갈등대처행동 척도 문항과 신뢰도 계수	23
<표 5> 성별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의 차이 검증	26
<표 6> 성별에 따른 심리적 독립의 차이 검증	27
<표 7> 성별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 검증	28
<표 8> 성별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 검증	29
<표 9> 교제 기간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 검증	30
<표 10>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갈등대처행동의 상관계수	31
<표 11>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행동의 상관계수	32
<표 12>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행동의 상관계수	33
<표 13> 성 고정관념과 갈등대처행동의 상관계수	35
<표 14> 교제 기간과 갈등대처 행동의 상관계수	36

<표 15>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심리적 독립 및 성 고정관념의 상관계수	37
<표 16> 남학생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38
<표 17> 여학생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40
<표 18>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교제 기간 하위 25%	41
<표 19>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교제 기간 상위 25%	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맞게 되는 성인기 초기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넓은 대인 관계를 맺게 되는 시기이다. Erikson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략 20세부터 24세인 성인기 초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는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라 한다.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 배우자 등과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이에 실패하면 고립감이 생긴다고 보았다(Hergenhahn & Olson, 2003). 이 시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인간관계는 중 하나는 이성 관계이다.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가장 심각한 고민으로 진로 문제와 이성문제를 꼽았다(이진화, 김태희, 2001). 이성 관계는 향후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결혼 후의 생활과도 연관이 있으며, 또 성인기 초기의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적지 않다. 이성 관계의 친밀감 획득에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며,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박정윤, 2007).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여 해결하는 것은 성인의 인간관계 질과 만족도에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Bradbury et al., 1998). 따라서, 이성 관계의 갈등 대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인간관계의 발전의 한 부분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여러 가지 이다. 우선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수입 등등의 사

회 인구학적 요인들이 제기되었다(이현주, 1996). 특히 이성 관계(부부 관계 포함)의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원가족 변인이 지목되었다(박정운, 2007; 이수희, 정문자, 2005; 이현주, 1996; 정문자, 이종원, 2003; 최규련, 1994; Benson et al., 1993; Larson et al., 2000). 원가족 변인으로 지목된 것에는 가족의 분화 정도(이수희, 정문자, 2005),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박정운, 2007) 등이 있다.

Straus(1979)가 분류한 바에 따르면 갈등대처행동은 크게 이성적인 대처와 언어적 공격, 폭력의 3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폭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정 폭력(대부분 아내 폭행)이나 미혼인 커플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에 관한 것이다. Riggs와 O'Leary(1989)는 사회학습 이론으로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데이트 폭력을 예언하는 변인들을 크게 개인적 요인(the contextual variables)과 상황적 요인(situational variables)으로 나누었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경험한 폭력,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성격 특성 등이 개인적 요인에 포함되는 것이다. 상황적 변인으로는 스트레스, 관계 내의 갈등 등이 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이성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성인기 초기 대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성 관계의 갈등대처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Riggs와 O'Leary(1989)가 언급한 개인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 한다. 이제 막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시기를 감안하여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 부모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성 고정관념, 그리고 성인기 초기에 중요한 과제로 평가 받는 심리적 독립이 그것이다. 또, 데이트 폭력과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들 중에서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교제 기간'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교제 기간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장희숙, 조현각, 2001; Neufeld et al., 1999). 그러나, Luthra와 Gidycz(2006)는 교제 기간이 남성의

폭력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지만 여성의 폭력에 대한 예측 변인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자녀의 이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게서 받는 직접적인 영향에는 가정 폭력에의 노출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Heyman, 2001; Skuja & Halford, 2004).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단순한 폭력의 목격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폭력 사용과 상관이 있다고 한다. 부모가 서로간에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Feng et al., 1999; Rodrigues & Kitzmann, 2007). 사회 학습 이론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부모의 결혼 관계를 보면서, 자녀들은 특정 행동 유형(갈등 해결 전략 등)을 배우기도 하고, 이성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터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Crockett & Randall, 2006). 자녀들이 자신의 이성 관계에서 부모 간의 갈등과 비슷한 유형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모 갈등에 관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자녀가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부모간의 갈등을 관찰한 것과 자녀가 이성 관계에서 취하는 갈등대처 행동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성 고정관념은 오래 지속되었으며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강하게 유지되는 고정관념이라고 한다(방희정, 조혜자, 2001; 조혜자, 2001). 대부분의 성 고정관념이 여성에게 불리하지만, 여성들도 성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성 고정관념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널리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쪽에 불리한 기준이 이성 관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간의 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성 고정관념을 주요한 폭력 유발 요인으로 지목하였다(김지영, 최상진, 2004; 유만수, 2000). 많은 폭행 남편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거나,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고, 남녀 평등의식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페미니스트들뿐 아니라,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내 폭행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었다고 한다(김지영, 최상진, 2004). 성적 불평등 인식, 성 차별적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 남편의 폭력에 대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불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내가 남편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폭력이 묵인된다는 것이다. Goldstein(1986)에 따르면, 가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남성은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서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 Lichte 와 McCloskey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지배적인 가정의 자녀들이 데이트 폭력을 많이 행한다고 한다(서경현, 안귀여루, 2007에서 재인용). 이렇듯 성 고정관념은 부부 간의 폭력에서 뿐만 아니라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진 성 고정관념이 이성간 갈등 대처 행동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Bloom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하는 과정은 개인적 적응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하였다(Hoffman, 1984에서 재인용). 지금까지의 심리적 독립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진로 결정이나 대학생활 적응을 다룬 것이 많다.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한 자녀는 진로 결정에서도 효능감을 가지며, 대학 생활에도 적응을 잘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독립은 사회생활 적응, 대인 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은진, 2001). 그러나, 직접적으로 심리적 독립과 이성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성 관계도 대인 관계 중의 하나이며,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크게 고민되는 문제 중의 하나 이다(이진화, 김태희, 2001). 대학 생활의 적응 척

도(조수진, 2000)에서도 이성 관계에 대한 문항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심리적 독립이 이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성인기 초기의 중대한 문제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성인기 초기의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인 이성 관계의 갈등 대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갈등 대처 행동

Straus(1979)는 갈등이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에서 (가족 관계를 포함 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갈등이 없었다면 변화도 없었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보다는 그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해결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연구나 전문적인 서비스 등은 갈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Straus(1979)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갈등대처행동을,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해결할 정보 등을 이용하는 이성적인 대처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언어적 공격 및 육체적 힘을 사용하는 폭력의 3가지로 분류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폭력의 사용 간에 부정 상관이 존재하였고, 부부간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경우 폭력의 사용이 많았다. 특히, 남편의 경제력과 위신이 부인보다 낮을 경우 남성 우위를 유지하고자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갈등대처 행동은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되는데, 최규련(1994)은 갈등에 대처하는 행동을 크게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행동표출’, ‘회피’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인이 신앙에 의지, 외부에 도움요청, 감정 표출, 회피 등의 대처 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남편은 행동 표출을 부인보다 더 사용하였다. 또,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성이 높을수록 이성적 대처 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행동 표출과 회피 등의 비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적게 사용하였다.

갈등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인구 사회적 변인들을 꼽을 수 있는데, 성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안경애(2003)에 의하면, 이성 교제 시 여성은 이성적 방법과 언어적 공격을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하며, 여대생의 경우 부적절한 갈등대처행동은 불쾌감, 친밀감 상실, 대화 단절, 실연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한다(안경애, 2003).

또 박정운(2007)의 연구에서 원가족의 건강성과 결혼에 대한 인지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니, 원가족의 건강성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가족 건강성 인지는 긍정적인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원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가족 내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갈등대처 행동 중에서도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부분은 폭력에 대한 것이다. 부부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데이트 폭력의 실태에 대하여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국내의 데이트 폭력 발생률은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폭력 86.7%, 신체적 폭력 21.4%(장희숙, 조현각, 2001), 신체적 및 성적 폭력 가해 29.8%(안귀여루, 2002), 신체적 폭력 가해 15.6%, 신체적 폭력 피해 16%(백주현, 2006) 등의 결과가 보고되었다. 폭력의 정의와 조사 대상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이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단계로 보인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정혜정, 2003), 남녀가 비슷한 비율이라는 보고도 있으며(장희숙, 조현각, 2001), 여성이 더 많은 폭력을 사용한다고 연구도 있

다(서경현, 2004).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이 현실이 잘 반영된 것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장희숙과 조현각(2001)은 폭력을 시작한 주체, 폭력의 정도 등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폭력을 시작하는 주체는 남성인 경우가 많고, 여성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지목되었으나, 그 결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안귀여루, 2006). 장희숙과 조현각(2001)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예측 변인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성별, 질투심, 교제 기간, 교제 깊이,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전체 효과가 가장 높았다는 보고도 있었다(정혜정, 2003). 또, 가정 폭력 경험과 관찰 모두 초기 성인기의 데이트 폭력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서경현, 2004).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변인들 중 교제 기간에 대한 연구들은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한다(장희숙, 조현각, 2001 에서 재인용). 교제 기간이 길수록 폭력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 연구(Neufeld et al., 1999)도 있었지만, 오히려 짧은 경우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었다고 한다(장희숙, 조현각, 2001 에서 재인용). 반면 교제 깊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보인다고 하였는데, 교제 깊이와 폭력 사용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장희숙과 조현각(2001)은 남녀가 정서적, 신체적으로 친밀해 질 때 폭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것이 아니기에 교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폭력의 사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교제 기간이 긴 집단과 짧은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렇듯 갈등대처 행동에 대한 분류도 다양하고,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지목된 것들은 많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인들이 갈등대처 행동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또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부부의 갈등과 갈등대처 행동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부부의 갈등, 이혼, 결혼 적응이나 만족도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Feng et al., 1999; Rodrigues & Kitzmann, 2007). 이는 사회 학습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Bandura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모델로부터 학습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특히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를 응용하였다. 공격성에 있어서 생물학적 요인들의 역할을 인정하였지만, 직접 경험의 역할을 더 강조한 것이다. 아동은 사회화를 통해서 공격성을 배우는데 이는 아동이 직접 보상을 받았던가, 다른 누군가가 그 행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반사회적(antisocial) 행동뿐만 아니라 친사회적(prosocial) 행동 역시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Hogg & Vaughan, 2002).

직접적으로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Malinosky와 Hansen(1993)은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아동 학대의 결과(특히 장기간에 나타나는 영향)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결과를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다. 75%의 학대 받은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그들의 이성 파트너에게 유사한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linosky와 Hansen은 신체적 학대와 이성 파트너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상관은 다소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는 예측 변인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학대의 영향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대 받은 남성의 경우 더 많은 폭력을 사용했다.

부모의 폭력을 보면서 자란 남성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적인 관계를 가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폭력에 노출

되어도, 그것이 폭력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한다(Heyman, 2001). 자녀가 부모를 모델링 하면서 남성은 갈등을 공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것은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하지만, 원가족 요인은 폭력 사용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Skuja & Halford, 2004). Widom은 이렇게 부모 간의 폭력과 자녀의 이성 관계의 폭력에서 발견된 상관을 "세대간의 폭력 전달(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이라고 명명하였다(Hendy et al., 2003 에서 재인용).

Davies와 Lindsay(2001)는 meta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갈등(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가해하지 않는)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차이가 났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남성 취약성(male vulnerability) 모델'과 '차별화된 반응성(differential reactivity) 모델'을 제시하였다. '남성 취약성 모델'은 부모의 갈등과 아동의 부적응 간의 관계는 남자 아이들에게서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년들이 부모 갈등의 안 좋은 영향에 더 민감하다고 가정한다. '차별화된 반응성 모델'은 이와는 달리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지만 드러내는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부모의 갈등에 노출되었을 때, 분노, 공격성 등 외부로 증상을 나타내는 반면, 소녀들은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나며 불쾌감 등 극단적으로 내현화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의 절반은 '남성 취약성 모델'이 유효한 것으로 나왔고, '차별화된 반응성 모델'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이 증명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별 자체가 부모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조절 변인이 된다고 말하기는 힘들며, 단지 주목할 만한 변인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서경현(2004)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에게서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폭력의 목적과 데이트 폭력 사이의 상관성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서 데이트 폭력과의

상관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 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를 5% 이하, 데이트 폭력 피해를 8% 이하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는 그리 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Skuja와 Halford(2004)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효과적인 갈등 대처를 학습하는 것에 실패하는 결과는 낳는다고 한다.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은 갈등 대처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행동하였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고하여 답하는 보고서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원가족의 폭력에 대한 동성 자녀의 평가가 매우 유사하게 나온 선행 연구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Skuja & Halford, 2004에서 재인용). 이성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정도는 원가족으로부터 학습되며, 이성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이성 관계의 해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갈등 대처 방식의 중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차정화, 전영주, 2002).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한 세대의 커플 관계가 그 다음 세대의 커플 관계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Skuja & Halford, 2004)와 원가족의 기능성의 수준이 다음 세대의 커플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Feng et al., 1999)에서 원가족의 영향력이 미혼 남녀의 데이트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뿐 아니라 갈등대처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3)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행동

인간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감(ego-identity)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입시로 인해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을 갖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런 실험적 기간은 어느 문화권이나 존재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 기간은 오히려 정체감 유실이나 정체감 혼란의 시기라고 하였다. 특수하게도 한국의 상황은 입시 준비로 인해서 신체적 연령

은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족(주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어 버린다(김순기, 유영주, 2001).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은 대학입시를 치르고 나면, 즉 대학생이 되면 끝난다. 대학생이 되는 순간 한국의 청소년들은 비로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라기보다는 성인기 초기라고 불러야 맞을 것이며, 성인기 초기의 한국 대학생들은 그 사이 미뤄두었던 심리적인 숙제들을 시작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심리적 독립이다. 한편,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지연되어 결혼이라는 성인기 과제에 직면해서야 나타난다고도 하지만(남순현, 한성열, 2003),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미 완전하진 않더라도 심리적 독립을 향한 개인의 발걸음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Hoffman(1984)은 건강한 개인적 적응을 원하는 개인의 욕망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개인으로써의 정체감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성격 형성과 개인적 적응에 중요한 발달적 과제로 꼽았다. Hoffman은 분리-개별화의 단계를 고려하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4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기능적인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이고, 둘째는 부모로부터 지지 받고 사랑 받고 싶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이다. 셋째는 부모와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넷째는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으로 부모의 태도나 신념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신념 체계를 갖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 차원은 갈등에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감정만큼이나 친밀함에서 오는 긍정적 감정 역시 반영한다고 한다. 이 4가지 차원은 심리적 독립 척도(PSI)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심리적 독립 척도와 개인의 적응을 평가하는 척도들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Hoffman, 1984) 갈등적 독립이 높은 것과 더 나은 개인

적 적응이 상관이 있었다. 특히 이성 관계에 대한 적응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남녀 모두 부모로부터 갈등적 독립이 높은 경우 이성 관계에서 문제가 적었다. 이성 관계와의 상관을 보인 또 다른 세부 척도는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고,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높은 여학생은 이성 관계에서 더 나은 적응을 나타냈고,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이 높은 남학생은 이성 관계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정서적 독립은 더 나은 학교 생활 적응과 상관이 있었다. Hoffman은 이 부분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중점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심리적 독립 척도가 이 시기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PSI는 분리-개별화를 측정하는 도구이지, 애착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PSI 에서 높은 점수가 애착이 없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Haws & Mallinckrodt, 1998).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심리적 독립을 하는 것이 정신적 안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한 정도가 높은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더 적응을 잘 하였다(Beyers & Goossens, 2003). 또, 부모로부터 높은 수준의 독립을 하는 것과 긍정적인 독립 감정은 더 나은 대학 생활의 적응과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을 한 학생은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독립에 부정적이거나 분노의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독립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생활에의 적응은 높은 상관이 있었다(Haws & Mallinckrodt, 1998). 남편의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남편의 결혼 만족도뿐만 아니라 아내의 결혼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국내에서 심리적 독립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를 대상으로 진로 발달과 대인 관계, 우울, 방어기제 등과 심리적 독립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심리적 독립은 대학 및 사회생활 적응, 대인 관계, 진로발달, 진로성숙 및 진로결정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진, 2001; 김정애, 1998; 박찬주, 1993; 이영선, 1999).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같은 성별의 부모와 다른 성별의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다를 것이므로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구분할 것이다. 또, 기존 연구에서 세부 척도 별로 이성 관계에 있어서의 상관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세부 척도별로도 살펴볼 것이다.

4) 성 고정관념과 갈등대처행동

고정관념(stereotype)은 “사회 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해 널리 공유되고, 간단히 평가된 이미지”이다(Hogg & Vaughan, 2002, p347). 이러한 고정관념들은 실제의 차이보다 인위적인 사회규범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과잉 단순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박유정, 2000).

성 고정관념의 발달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나이가 들어 갈수록 성 고정관념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가 들어 갈수록 더 확고해진다는 것이다. Kohlberg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 인지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그 결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고 한다. 또 다른 이론은 모든 연령 집단에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 확산되어 있다는 전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아동이 나이가 많아지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며 고정관념적 지식의 넓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손희정, 2007에서 재인용).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 중기에서 청소년 초기까지는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성 고정관념이 감소하고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남학생보다 낮다고 보고 하였다(김경미, 양혜영, 2005). 또,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가호(199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획득과 발달에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 고정관념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남학생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성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남녀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숙 등, 1998)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박유정(200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남학생이고 학년이 높을수록(나이가 많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면서도 연령이 높은 사람은 기존 세대의 보수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방희정, 조혜자(2004)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성 고정관념이 높았으며, 이를 자아 해석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여성들은 여성 고정관념은 거부하면서도, 자아 해석을 고정형적으로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고정관념을 스스로 실천하고 자아에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 고정관념이 아내 폭행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데이트 폭행에서도 나타났는데, 안귀여루(2002)에 따르면, 성차별적 태도와 데이트 폭력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고 한다. 성차별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 교제 시 폭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 차별적인 사고를 가진 남성의 폭력 가해 성향이 높다는 보고도 있었다(Bernard et al., 1985). 본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 및 기타 갈등 대처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II. 연구 목적 및 가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성인기 초기 남녀 대학생 집단에 있어서 지각한 부모 갈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정도, 성 고정관념 수준 및 갈등대처행동 등을 조사하여 각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고, 이성간의 갈등대처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갖는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2. 가설

가설 1.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성 고정관념 및 갈등대처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갈등 정도가 낮으면 이성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더 많이 취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갈등 정도가 높으면 회피 행동이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가설 3.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정도가 높은 자녀는 이성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더 많이 취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정도가 낮은 자녀는 갈등 상황에서 회피 행동이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 4.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으면 이성적인 갈등 대처 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성 고정관념이 높으면 회피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 5. 지각한 부모 갈등이 다른 변인에 비해 갈등 대처 행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3월 17일부터 4월 19일 사이 전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중 연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인터넷 상에 올려진 설문지를 내려 받아 응답을 하거나 직접 인터넷 상으로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유효성에 맞추기 위하여 연령은 18~21세로 제한하고, 친부모가 생존하여 있는 사람들의 설문을 선별하였다. 또, 응답 시간이 매우 빠르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남녀 391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 391명 중 남성은 206명(52.7%), 여성은 185명(47.3%)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연령은 20.02세(남성 19.95세, 여성 20.11세)였다. 교제 기간은 평균 10.71개월(남성 10.12개월, 여성 11.36개월)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로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척도, 심리적 독립 수준 척도, 성 고정관념 척도, 갈등대처행동 척도 및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포함한 총 2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20~25분이다. 각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척도(CPIC: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Grych 등(1992)은 아동의 관점에서 부모의 갈등을 평가하는 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갈등의 차원을 설명하는 4개 하위척도(빈도, 강도, 해결, 내용)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나타내는 4개 척도(자기 비난, 위협, 대처효율성, 부부갈등의 원인에 대한 안정성 지각)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부부갈등의 예측가능성과 부부갈등에 아동이 연루될 가능성의 두 요인이 포함되어 총 10개 차원, 70문항이다.

이 척도는 권영옥, 이정덕(1997)에 의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연구되었다. 원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9개 하위척도(갈등의 빈도, 갈등의 강도, 갈등의 해결, 갈등의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안정성)의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내적 합치도에서 떨어지는 안정성 척도를 제외한 8개 척도의 44문항을 가지고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 척도와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

원래 CPIP는 9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검사였으나 Bickham와 Fiese(1997)는 CPIC를 청소년 후기의 자녀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연

구 하였다. 17세부터 21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나이가 어린 그룹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흡사한 결과를 얻어 내었으며, 신뢰도와 외적 타당도 역시 문제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 검증한 44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전체 신뢰도는 .913 이고,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와 해당 문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척도 문항과 신뢰도 계수(*은 역채점 문항)

하위척도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부부갈등의 빈도	1*, 9, 13, 16, 24*, 31	.757
강도	4, 11*, 19, 27, 32*, 34, 39	.841
해결	2*, 10, 17*, 25*, 35*, 42	.815
내용	3, 18, 26, 33	.768
지각된 위협	6, 14, 21, 29, 36, 41	.807
대처효율성	5*, 12, 20*, 28, 40, 44	.720
자기비난	8*, 15, 23, 37, 43*	.709
삼각관계	7, 22, 30, 38	.632

2) 심리적 독립 수준 척도(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심리적 독립 수준 척도(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는 Hoffman(1984)이 만든 것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각각 측정하며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FI) 26문항,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AI) 28문항,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EI) 34문항, 갈등적 독립

(conflictual independence: CI) 50문항의 총 138문항이다.

기능적 독립이란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고, 정서적 독립은 부모로부터 지지 받고 사랑 받고 싶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적 독립은 부모와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태도적 독립은 부모의 태도나 신념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신념 체계를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offman(1984)의 척도를 정은희(1992)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1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전체 신뢰도는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892,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899 이고,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와 해당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심리적 독립 척도 문항과 신뢰도 계수(전체 문항이 역채점)

하위척도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부 / 모
기능적 독립 (FI)	4, 9, 13, 17, 23, 27, 31, 36, 41, 46, 51, 53, 54	.890/.854
태도적 독립 (AI)	8, 12, 16, 19, 22, 26, 30, 35, 40, 45, 50, 52, 56	.895/.851
정서적 독립 (EI)	1, 3, 10, 15, 24, 32, 38, 42, 44, 48	.861/.825
갈등적 독립 (CI)	2, 5, 6, 7, 11, 14, 18, 20, 21, 25, 28, 29, 33, 34, 37, 39, 43, 47, 49, 55	.879/.861

3) 성 고정관념 척도

김동일(1993)이 작성한 것으로,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김동일(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0~.83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유정(2000)이 김동일(1993)의 척도를 신뢰도 계수를 높여 재구성한 30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두 5개의 하위 척도(직업 및 외형적 특성, 사회적 성역할, 사회 심리적 특성, 가정적 성역할, 지적 특성)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음을 나타낸다. 박유정(2000)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4이고, 각 하위 척도가 .73~.87의 신뢰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전체 신뢰도는 .923 이고,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와 해당 문항은 <표 3>와 같다.

<표 3> 성 고정관념 척도 문항과 신뢰도 계수(*은 역채점 문항)

하위척도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직업 및 외형적 특성	5, 8, 12, 18, 20, 21, 22, 25, 28	.828
사회적 성역할	6*, 10*, 15*, 17, 24*	.807
사회 심리적 특성	13, 16, 19, 26, 27, 29, 30	.797
가정적 성역할	2, 3, 4, 9, 14, 23	.807
지적 특성	1, 7, 11	.631

4) 갈등대처행동 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Straus가 1979년 제작한 CTS를 번안하여 최규련(1994), 이현주(1996) 등이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최규련(199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조유리와

김경신(2000)의 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이 척도는 갈등대처행동을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 요청, 회피 및 부정적 감정과 행동 표출의 네 가지로 구분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척도가 부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이므로 미혼인 피검사자에 맞추어 문항 중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를 낸다’는 ‘이성친구에게 화를 낸다’로 수정되었다. 이렇게 수정된 문항은 모두 7개이다(4, 5, 8, 10, 14, 16, 21).

본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전체 신뢰도는 .697 이고,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와 해당 문항은 <표 4>와 같다.

<표 4> 갈등대처행동 척도 문항과 신뢰도 계수

하위척도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이성적 대처	1, 5, 9, 14, 18	.658
외부도움 요청	2, 6, 11, 15, 19	.618
회피	3, 7, 12, 16, 20	.617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4, 8, 10, 13, 17, 21	.866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은 빈도 분석을 하였고, 변수들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하였다.
- 2) 모든 변인들과 갈등대처행동과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하였다.
- 3) 남녀가 각 변인들 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독립표본 T-test를 하였다.
- 4) 세 가지 변인 중 어떤 요인이 갈등대처행동을 가장 잘 예측 해주는지 알기 위해 위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 391명 중 남성은 206명(52.7%), 여성은 185명(47.3%)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연령은 20.02세(표준편차 .80)이며, 남성은 평균 19.95세(표준편차 .76), 여성은 평균 20.11세(표준편차 .85)였다. 종교는 ‘없다’(남 52.4%, 여 47%)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기독교(남 29.6%, 여 26.5%), 불교(남 10.7%, 여 15.7%), 카톨릭(남 5.3%, 여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는 남녀 모두 ‘이미 알고 있던 사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남 63.1%, 여 54.6%), ‘친구 소개’(남 21.8%, 여 28.6%), ‘기타’(남 11.7%, 여 14.6%), ‘사이버 채팅’(남 2.4%, 여 1.6%), ‘친인척 소개’(남 1.0%, 여 0.5%) 순이었다. 남녀 모두 ‘동갑인 이성친구와 사귀고 있다’(남 59.7%, 여 44.3%)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1~2살 차이가 난다’(남 33.5%, 여 28.6%)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교제 기간은 평균 10.71개월(표준편차 9.09)로 최소 3개월부터 최장 82개월이었으며, 여학생들의 연애기간(평균 11.36개월, 표준편차 10.40)이 남학생들(평균 10.12개월, 표준편차 7.71)보다 조금 더 길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성격 차이’(남 41.7%, 여 47%)와 만남의 횟수 및 공유 시간 등 ‘만남에 대한 불만’(남 26.7%, 여 24.9%)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경제적인 문제’(14.1%), ‘기타’(8.7%), ‘성문제’(3.4%) 등이라고 대답하였고, 여학생은 ‘기타’(9.2%), ‘성문제’(7.6%), ‘경제적인 문제’(6.5%) 순이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결혼을 생각 중’(남 14.1%, 여 8.6%)이라는 답변보다 ‘좀 더 교제 후 생각해 보겠다’(남 57.8%, 여 49.7%)는 답변과 ‘결혼

하지 않을 것'(남 28.2%, 여 41.6%)이라는 답변이 80% 넘게 나왔다.

2. 각 변인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

남녀에 따른 지각한 부모 갈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별에 따른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의 차이 검증 M(SD)

	남성(n=206) 문항평균M(SD)	여성(n=185) 문항평균M(SD)	t
부부 갈등의 빈도	.80(.46)	.77(.50)	.60
해결	.64(.44)	.66(.52)	-.42
내용	.31(.39)	.22(.35)	2.57*
강도	.76(.49)	.81(.54)	-.97
대처 효율성	.87(.45)	.86(.45)	.28
지각된 위협	.53(.47)	.55(.53)	-.41
삼각관계	.59(.44)	.50(.45)	1.88
자기 비난	.46(.39)	.29(.35)	4.58***
전체 점수	28.30(12.59)	27.08(14.57)	.89

*p<.05, ***p<.001

<표 5>에 의하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척도를 살펴보면, 부부 갈등의 내용과 자기 비난 척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 부모 갈등의 내용에 있어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그것이 자신과 관련 있다고 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2.57, p<.05$). 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갈등에 대한 자기 비난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4.58, p<.001$).

남녀에 따른 심리적 독립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심리적 독립의 차이 검증 M(SD)

심리적 독립	남(n=206) M(SD)	여(n=185) M(SD)	t
기능적 독립(어머니)	40.88 (8.11)	36.99 (9.74)	4.3***
태도적 독립(어머니)	38.68 (7.74)	38.11 (8.18)	.71
정서적 독립(어머니)	28.34 (6.19)	24.82 (6.52)	5.48***
갈등적 독립(어머니)	66.36 (9.76)	67.91 (11.84)	-1.412
합계(어머니)	168.74 (31.95)	161.09 (32.17)	2.36*
기능적 독립(아버지)	44.17 (9.14)	43.83 (10.30)	.344
태도적 독립(아버지)	41.03 (9.06)	41.66 (8.86)	-.689
정서적 독립(아버지)	31.68 (6.92)	30.53 (7.71)	1.561
갈등적 독립(아버지)	66.16 (11.82)	66.05 (12.81)	.085
합계(아버지)	180.09 (28.48)	175.41 (26.44)	1.69
전체 합계	348.83 (56.22)	336.50 (48.02)	2.34*

* $p < .05$, *** $p < .001$

<표 6>에 의하면 남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t=2.34$, $p < .05$) 나타났다. 부모를 각각 살펴보면,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t=2.36$, $p < .05$)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남학생이 더 독립적이었다. 심리적 독립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4.3, p<.000$; $t=5.48, p<.000$).

또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부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여학생의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남녀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성별에 따른 성 고정관념의 차이 검증 M(SD)

분 류	남(n=206) M(SD)	여(n=185) M(SD)	t
직업 및 외형적 특성	29.15 (5.95)	24.11 (6.21)	8.20***
사회적 성역할	10.43 (3.39)	6.98 (2.14)	11.88***
사회심리적 특성	21.10 (4.54)	18.70 (4.87)	5.05***
가정적 성역할	17.69 (4.28)	14.43 (4.89)	7.03***
지적 특성	8.64 (1.97)	7.29 (1.95)	8.80***
전체	87.00(15.17)	71.49(15.52)	9.97***

*** $p<.001$

<표 7>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 고정관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9.97, p<.000$). 또한 5개의 모든 하위 척도에서도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녀 간 성 고정관념이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

다.

남녀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성별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 검증 M(SD)

	남(n=206) 문항평균M(SD)	여(n=185) 문항평균M(SD)	t
이성적 대처	3.62(.56)	3.68(.60)	-1.12
외부도움요청	2.73(.67)	2.80(.57)	-1.14
회피	2.59(.62)	2.34(.58)	3.98***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2.03(.74)	2.05(.67)	-.23

*** $p < .001$

<표 8>에 의하면 남녀 모두 갈등이 생기는 경우 이성적인 대처 행동을 가장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M=3.62, SD=.56; 여성 M=3.68, SD=.60). 또,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남 M=2.03, SD=.74; 여 M=2.05, SD=.67).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보면, 회피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갈등이 생기는 경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회피 행동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8, p<.000$).

이를 다시 교제 기간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별로 각각 교제 기간이 짧은 하위 25%(남 평균 교제 기간 3.2개월, 표준편차 .41; 여 평균 교제 기간 3.35개월, 표준편차 .48)인 집단과 교제 기간

이 긴 상위 25%(남 평균 교제 기간 20.25개월, 표준편차 7.31; 여 평균 교제 기간 24.89개월, 표준편차 12.45)인 집단 간에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교제 기간에 따른 갈등대처행동의 차이 검증

		교제 기간		t
		하위 25% (남: n=54, 여: n=48) 문항평균 M(SD)	상위 25% (남: n=55, 여: n=46) 문항평균 M(SD)	
남	이성적 대처	3.60(.59)	3.68(.52)	-.685
	외부도움 요청	2.79(.69)	2.78(.59)	.117
	회피	2.63(.66)	2.54(.62)	.718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1.95(.79)	2.14(.74)	-1.128
여	이성적 대처	3.73(.49)	3.56(.65)	1.464
	외부도움 요청	2.75(.59)	2.75(.49)	-.057
	회피	2.38(.51)	2.37(.67)	.080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1.81(.55)	2.30(.69)	-3.800***

*** p<.001

여학생의 경우, 교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t=-3.800, p<.000$). 그러나 다른 갈등대처 행동의 경우 증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교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따라서 변인들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은 일부 지지되었다.

3.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갈등대처행동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갈등대처행동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갈등대처행동의 상관계수(r)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남	여	전체
이성적 대처	.05	-.15*	-.06
외부도움요청	.05	.06	.05
회피	.10	.13*	.12*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13*	.21**	.17**

* $p < .05$, ** $p < .01$

<표 10>에 의하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이루는 것은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r = .17, p < .01$). 남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여학생이 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여 $r = .21, p < .01$; 남 $r = .13, p < .05$). 이와 다르게 회피 행동에 있어서는 여학생만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r = .13, p < .05$). 또, 지각한 부모 갈등이 높을수록, 여학생들은 이성적 대처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5, p < .05$).

또 남녀의 상관계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하고(이관용 등, 2005), $Z_{\text{관찰}}$ 값을 구하였다(부록 참조). 유의도 .05 수준에서 $Z_{\text{관찰}}$ 값이 1.96 이상 또는 -1.96 이하인 경

우 독립적인 두 상관계수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과 이성적 대처 간의 상관 계수의 $Z_{\text{관찰}}$ 값만이 1.97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한 부모 갈등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는 일부 지지되었다.

4.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행동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행동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행동의 상관계수(r)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남	여	전체
이성적 대처	-.05	-.10	-.08
외부도움요청	-.15*	-.09	-.13**
회피	-.02	-.01	.01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07	.02	-.03

*p<.05, **p<.01

<표 12>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대처행동의 상관계수(r)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남	여	전체
이성적 대처	.01	.08	.03
외부도움요청	-.20**	-.11	-.17**
회피	-.07	-.08	-.06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28***	-.00	-.16**

** p<.01, *** p<.001

<표 11>에 의하면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 대처 행동 중 외부도움 요청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3$, $p<.01$). 그러나,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부적인 상관은 보이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 <표 1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갈등 대처 행동 중 외부도움 요청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17$, $p<.01$; $r=-.16$, $p<.01$).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응답자 중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부적이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여학생의 갈등대처행동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남학생의 갈등대처행동 중 이성적 대처 행동과 회피 행동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 상관계수를 표준화하여 남녀의 상관계수 차이를 검정한 결과에 따르면(부록 참조),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간의 상관 계수의 Z_{관찰} 값만이 -2.82로 .05 유의도 수준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심리적 독립 척도의 세부 영역과 갈등대처 행동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록 참조)

여학생의 이성적 대처 행동은 어머니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및 갈등적 독립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r=-.17, p<.05$)과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r=.19, p<.05$)을 보였다. 또,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여학생의 외부도움 요청 행동과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 관계를 맺고 있다($r=-.21, p<.01$; $r=-.17, p<.01$). 여학생의 회피 행동은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 및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15, p<.05$; $r=-.28, p<.01$; $r=-.15, p<.05$). 마지막으로 여학생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2, p<.01$).

남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이 보이지 않던 회피 행동도 심리적 독립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니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과 아버지와 갈등적 독립이 남학생의 회피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r=-.26, p<.01$; $r=-.18, p<.01$). 그러나, 남학생의 이성적 대처 행동과 심리적 독립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덜 할 것이라는 가설 3은 일부 지지되었다.

5. 성 고정관념과 갈등대처행동

성 고정관념과 갈등대처행동 간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성 고정관념과 갈등대처행동의 상관계수(r)

	성 고정관념		
	남	여	전체
이성적 대처	-.19**	-.28***	-.23**
외부도움요청	.06	.12*	.05
회피	.17**	.34***	.31**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	.23***	.10	.15**

* $p < .05$, ** $p < .01$, *** $p < .001$

<표 13>에 따르면 성 고정관념은 외부도움 요청을 제외한 모든 갈등 대처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성 고정관념과 이성적 대처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r = -.23$, $p < .01$), 회피 행동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31$, $p < .01$; $r = .15$, $p < .01$). 다만, 여기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일부 드러났다. 남학생의 경우 성 고정관념과 외부도움 요청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외부도움 요청 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12$, $p < .05$). 또,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r = .23$, $p < .001$), 여학생의 경우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성 고정관념이 낮으면 이성적 대처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6. 교제 기간과 갈등대처 행동

교제 기간과 갈등대처 행동간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교제 기간과 갈등대처 행동의 상관계수(r)

	교제 기간		
	남	여	전체
이성적 대처	.04	-.02	.01
외부도움요청	.02	.03	.03
회피	-.01	.03	-.00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09	.19**	.14**

**p<.01

여학생의 교제 기간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사이에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r=.19$, $p<.01$). 그러나, 다른 갈등대처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갈등대처 행동과 교제 기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7.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심리적 독립 및 성 고정관념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심리적 독립 및 성 고정관념 간 각각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심리적 독립 및 성 고정관념의 상관계수(r)

변인	전체(남/여)			
	1	2	3	4
1.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			
2.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08 (.18**/.00)	-		
3.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00 (-.07/.07)	.55** (.73**/.34**)	-	
4. 성 고정관념	.06 (-.02/.11)	-.04 (-.17*/-.03)	-.10* (-.24**/-.06)	-

* $p < .05$, ** $p < .01$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유의미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73, p < .01$). 따라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또, 성 고정관념과 아버지로부터의 독립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24, p < .01$).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에서 번갈아 투입하여 결과를 살펴보고, 모두 투입하였을 경우 분산팽창 요인과 공차 한계를 확인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34, p < .01$). 두 변인 중 어느 것의 영향력이 더 큰 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합한 새로운 변수를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심리적 독립 척도의 하부 척도를 사용하여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록 참조) 남녀 모두 심리적 독립

척도의 하부 척도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많이 나타났다. 상관이 높은 변인들의 경우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한 쪽을 제외하고 실시하거나, 모두 투입하여 분산팽창 요인과 공차 한계를 확인하였다.

8.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부모부터의 심리적 독립, 성 고정관념 및 교제 기간과 갈등대처행동

모든 변인 중에 어떤 변인이 갈등대처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 <표 17>과 같다.

<표 16> 남학생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eta	F	t
이성적 대처	성 고정관념	.036	-.189	7.520	-2.742**
외부도움 요청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061	-.206	9.776	-2.981**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088	-.169		-2.442*
회피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065	-.255	14.203	-3.769***
부정적 감정 행동 표출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092	-.303	20.635	-4.543***

*p<.05, **p<.01, ***p<.001

<표 16>에 따르면 성 고정관념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남학생의 갈등대처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은

이성적 대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Beta = -.189$), 성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갈등이 있는 경우 이성적으로 대처한다고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은 갈등대처행동 중 이성적 대처를 3.6% 설명하여,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 어머니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기능적 독립)과 아버지와의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갈등적 독립)이 부족할수록 이성 파트너와의 갈등이 있을 때, 외부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6$; $Beta = -.169$).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외부도움 요청 행동을 6.1% 예측하며,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2.7% 예측하고 있다. 남학생은 어머니와의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정도(갈등적 독립) 낮을수록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5$). 회피하는 행동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으로 6.5% 설명된다.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높으면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적었다($Beta = -.303$).

<표 17> 여학생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eta	F	t
이성적 대처	성 고정관념	.079	-.281	15.689	-3.961***
외부도움 요청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042	-.206	8.073	-2.841**
회피	성 고정관념	.114	.338	23.629	4.861***
부정적 감정 행동 표출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048	-.214	8.261	-3.009**
	교제 기간	.083	.188		2.655**

p<.01, *p<.001

<표 17>에 따르면 성 고정관념과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교제 기간이 여학생의 갈등대처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 고정관념이 클수록 갈등 대처에 있어서 이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81), 이는 7.9%를 설명하고 있다. 또, 성 고정관념은 회피 행동을 11.4% 설명하고 있는데,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회피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Beta=.338). 한편, 여학생들은 어머니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기능적 독립)이 낮을수록 갈등이 있는 경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Beta=-.206).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외부도움 요청 행동을 4.2% 예측하였다. 또, 어머니와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갈등적 독립)이 낮고(Beta=-.214), 교제기간이 길수록 (Beta=.188)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더 많이 하였다.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여학생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4.8% 설명하고 있으며, 교제 기간은 3.5% 설명하고 있다.

이를 다시 교제 기간의 차이에 따른 갈등대처 행동의 예측변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분류한 교제 기간이 짧은 하위 25% 집단과 교제 기간이 긴 상위 25% 집단을 구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재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8>, <표 19> 와 같다.

<표 18>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교제 기간 하위 25%

구 분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eta	F	t
남 (n=54)	회피	성 고정관념	.125	.354	5.864	2.422*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212	-.434		
	부정적 감정 행동 표출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275	-.253	9.697	-3.622**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136	-.369		
여 (n=48)	이성적 대처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095	-.309	4.856	-2.204*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122	-.350		
	회피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122	-.350	6.408	-2.531*
		부정적 감정 행동 표출	갈등적 독립			

*p<.05, **p<.01

<표 18>에 따르면 성 고정관념과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교제 기간이 짧은 집단(하위 25%)의 갈등대처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성 고정관념이 클수록 회피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있으며 (Beta=.354), 성 고정관념이 회피 행동을 12.5% 설명하고 있다. 또, 남학생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아버지의 태도와 신념과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 정도(태도적 독립)와 아버지와의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정도(갈등적 독립)에 따라 각각 21.2%, 6.3% 설명된다. 두 변인이 함께 27.5%를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34; Beta=-.253).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태도와 신념과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 능력(태도적 독립)이 높을수록 이성적 대처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69).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은 여학생의 이성적 대처 행동을 13.6% 설명하고 있다. 또, 아버지와의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회피 행동을 덜 보이고 있다(Beta=-.309). 여학생의 회피 행동은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의해 9.5% 예측된다. 또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12.2%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낮을수록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증가함을 보였다(Beta=-.350).

<표 19>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교체 기간 상위 25%

구분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eta	F	t
남 (n=55)	이성적 대처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128	.357	7.746	2.783**
	외부도움요청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226	-.476	15.513	-3.939***
	회피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143	-.378	8.862	-2.977**
	부정적 감정 행동 표출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142	-.377	8.788	-2.964**
여 (n=46)	이성적 대처	성 고정관념	.100	-.317	4.903	-2.214*
	회피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236	-.486	13.622	-3.691**
	부정적 감정 행동 표출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129	-.359	6.520	-2.553*

*p<.05, **p<.01, ***p<.001

<표 19>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교체 기간 긴 남학생(상위 25%)의 갈등대처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기능적 독립)이 높을수록, 갈등이 있는 경우 보다 더 이성적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7).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남학생의 이성적 대처 행동을 12.8% 예측하고 있다. 또, 남학생은 어머니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기능적 독립)이 낮을수록 외부도움을 더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6).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외부도움 요청 행동을 22.6% 예측하고 있다. 회피 행동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어머니와의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갈등적 독립)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78; Beta=-.377).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남학생의 회피 행동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각각 14.3%, 14.2%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여학생의 갈등대처 행동은 성 고정관념과 어머니와의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갈등적 독립)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이성적 대처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17). 성 고정관념은 여학생의 이성적 대처 행동을 10% 예측하고 있다. 또,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낮을수록 회피 행동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86; Beta=-.359). 회피 행동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의해 23.6% 예측되고,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의해 12.9% 예측된다.

따라서 지각한 부모 갈등이 갈등대처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5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의 대학생들의 이성간 갈등 대처 행동과 이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비로소 성인기를 시작하는 한국의 학생은 이성 관계에서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들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간접적으로 부모의 갈등을 보며 성장한 것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이성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 성인기 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 고정관념이 이성 관계에서 갈등에 대처하는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이성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느 정도 연애 기간을 거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교제를 한 학생들만을 분석하였다. 평균 교제 기간은 10.71개월로 관계가 지속되었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정도였다. 물론 연구 대상의 나이를 고려하여도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질 정도는 아니기에, 그 결과 좀 더 교제해 보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결혼을 생각 중이라는 답변보다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배 이상 많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 파트너가 자신이 생각한 배우자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혹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갤럽(2007)의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53.7%의 성인

은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여, 2005년의 조사 때 응답한 37.2%보다 16.5%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 여성(65.3%)이 남성(42.2%)보다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조사 내용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남녀 모두 갈등의 원인으로 성격 차이와 만남에 대한 불만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성인기 초기의 학생들이 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이성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또한 남녀가 같이 참여하여 만남의 횟수나 공유하는 시간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과 나누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 등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이 개입으로 인하여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연애 초기, 혹은 관계에서 갈등이 증폭되었을 때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각 변인에 나타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요소를 분석해 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갈등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여학생 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 중 하나인 ‘차별화된 반응성(differential reactivity) 모델’에 반(反)하는 결과이다. ‘차별화된 반응성 모델’에서는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한다(Davies & Lindsay, 2001). ‘차별화된 반응성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부모의 갈등에 의해 여자 아이들은 부적응적인 반응을 내적으로

보이게 되어, 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로 인해 자신을 비난하는 정도가 남학생 보다 높게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 보다 부모의 갈등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하는 ‘남성 취약성(male vulnerability) 모델’(Davies & Lindsay, 2001)을 지지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 갈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남학생이 부모 갈등에 대하여 특별히 취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각한 부모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정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어머니 보다 아버지에게서 더 독립적이었다. 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독립적이었는데, 이것은 여러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고향자, 강혜원, 2003; 김정애, 1998; 손희정, 2007; 이경민, 2004). 남학생이 더 독립적인 것은 정신분석 이론과 대상 관계 이론에 의하여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남아와 여아의 분리의 대상과 동일시의 대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손희정, 2007). 남아는 첫 번째 애착 대상이었던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분리와 동일시의 과정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어머니는 분리의 대상이며 동시에 동일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남아에 비해 어머니와의 분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분리와 동일시가 분명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심리적으로 더 독립적이며, 남녀 모두 첫 번째 애착 대상이었던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서 더 독립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남성은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심리적 독립이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보였듯이(김은영, 1991; 방희정, 조혜자, 2004; 손희정, 2007),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의 모든 세부 척도에서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앞의 심리적 독립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을 때, 심리적으로 더 독립적인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더 강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이것은 성 고정관념의 수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손희정, 2007). 여성에 비해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남성은 정형화된 사고를 벗어날 힘이 생기지만, 성 고정관념이 남성들에게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을 더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 대처 행동에 있어서는 회피를 제외하고 남녀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기 초기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회피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기간에 따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교제 기간이 길 경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교제 기간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장희숙, 조현각, 2001; Neufeld et al., 1999). 그러나, 교제 기간이 남성의 폭력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었지만 여성의 폭력에 대한 예측 변인은 되지 못했던 Luthra와 Gidycz(2006)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교제 기간이 긴 사람들이 짧은 사람들 보다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들이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을 다루고 있으나, 남성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안귀여루, 2002). 여성은 남성처럼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언어 폭력이나 감정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폭력 사용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도 교제 기간이 긴 경우 여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신체적 폭력 사용 증가보다 여학생들의 심리적

폭력(부정적 감정 표출) 사용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신체적인 폭력 사용이 파트너와의 노출(교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 Neufeld 등(1999)의 연구도 고려하여 볼 때, 교제 기간이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은 명확해 보인다. 다만, 그것이 남녀 간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또 폭력의 수준에 있어서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데이트 폭력의 지속성(Smith et al., 2003)과 그것이 향후 부부 관계에 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Hendy et al., 2003)을 고려할 때 교제 기간과 폭력의 증가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이성 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교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커플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항이 꼭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독립 변인들과 갈등대처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남학생은 지각한 부모 갈등이 클수록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갈등대처 행동과 지각한 부모 갈등 사이에는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여학생들의 갈등대처 행동은 지각한 부모 갈등과 더 많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각한 부모의 갈등이 높을수록 갈등 상황에서 남학생에 비하여 이성적 대처를 덜 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지각한 부모 갈등이 클수록 이성적 대처에 미흡하고 회피 행동이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성 민감성 모델’만으로도, 혹은 ‘차별화된 반응성 모델’만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진 않는다. ‘남성 민감성 모델’을 따른다면 남학생들이 더 큰 상관을 보였어야 한다. 또, ‘차별화된 반응성 모델’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남학생들이 그 영향을 외적으로 표출하여,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남학생이 지각한 부모 갈등과 더 큰 상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기존의 연구(Davies & Lindsay, 2001)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녀의 성별

이 눈에 떨 정도의 요인이 되진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남녀 모두 지각한 부모의 갈등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상관을 보였으므로,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의 관찰도 폭력 가해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독립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았을 때,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나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갈등 대처 행동과 주목할 만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 척도를 살펴보니, 부모와의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갈등적 독립이 여학생의 갈등대처행동들과 큰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로부터 갈등적 독립이 높은 여학생들은 이성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외부 도움 요청이나 회피 및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적게 하였다. 남학생에게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것은 Hoffman(1984)의 연구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친밀한 관계에서 불신과 부적절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이성 관계에서 애정을 교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모의 태도나 신념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신념 체계를 갖는 태도적 독립(남학생의 경우에만)과 아버지로부터 지지 받고 사랑 받고 싶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정서적 독립(여학생의 경우)도 이성 관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남학생은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클수록 외부 도움 요청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리-개별화가 잘 진행되어 주위의 도움 없이도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클수록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의 경우 이성간의 갈등 대처 행동에 있어서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버지가 폭력을 가하는 것을 관찰하여, 그런 아버지로부터 자신

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자신은 폭력 사용을 덜 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 고정관념은 갈등대처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남녀 모두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이성적 대처를 덜 하고 회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 고정관념이 이성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판단 체계를 제시한다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조혜자, 2001). 잘 정형화 되어 있는 성 고정관념이 정보 처리에 있어서 의식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활성화 되어 이성적인 대처 행동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이성적인 대처 행동은 잘 나타나지 않게 되고, 갈등에 부딪쳐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아예 갈등 자체를 회피하려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여학생들의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외부 도움 요청 행동이 증가하는 이유도 설명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양육적 특성을 강조하고, 인간관계 중심적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조혜자, 2001) 높은 성 고정관념을 가진 여성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데 아무런 심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의 성차별적 태도와 이성 교제 폭력 행동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 선행 연구(안귀여루, 2002)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性)적 폭력에 관한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으나, 안귀여루(2002)의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적 태도를 가진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인 강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되었다. 한편, 부부간의 폭력에도 성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2004)에 따르면, 폭력을 행하는 남편들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공격적이 되어 폭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

러나, 낮은 남녀평등 의식이 직접 아내 폭행과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김지영, 최상진, 2004). 이에 따르면 낮은 자존감, 낮은 남녀평등 의식, 높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부부간의 의사 소통을 방해하고 이것이 남편의 공격성을 활성화 시켜서 결국은 아내 폭행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넷째,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척도 내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더 큰 상관이 있었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아지면 정형화된 사고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이 낮다고 할 수 있다(손희정, 2007).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동성의 부모가 모델링의 관점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Bandura의 이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성 고정관념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성의 경우, 아버지가 동일시의 대상이지만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애착을 느끼는 대상은 어머니이므로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은 지각한 부모 갈등이 클수록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낮았다. 부모의 갈등을 보고 자란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선행 연구 결과(Davies & Lindsay, 2001 에서 재인용)를 고려해 볼 때, 지각한 부모 갈등이 큰 남학생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에 성인기 초기의 발달 과제인 심리적 독립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는 반대성의 부모(즉,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한다(Davies & Lindsay,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부모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자녀의 성별이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등대처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갈등대처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회피 행동을 제외하고, 10% 이상 예측 가능한 변인이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을 예언하는 변인들 중에서도 개인적 요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수 있다. 상황적 요인을 변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제한된 숫자의 독립 변인들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무리였을 지도 모른다.

우선 남학생의 갈등대처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부모와의 갈등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9.2% 설명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회피 행동을 예측하는데, 독립적일수록 회피 행동은 덜 나타난다. 부모와의 갈등에서 자유로운 자녀가 이성 관계의 갈등에서도 더 효율적인 대처 행동을 취하는 것(회피 행동이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덜 하는 것)은 Hoffman(1984)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어머니인 경우가 더 많으므로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높아짐으로써, 부모(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갈등 대처 시에 외부 도움 요청을 덜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한 분리-개별화가 친밀한 관계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되는 것(Haws & Mallinckrodt, 1998)에 비추어 볼 때, 성인기 초기의 남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성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의 이성적 대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은 성 고정관념으로 3.6%를 예측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 고정관념은 여학생의 이성적 대처 행동과 회피 행동을 각각 7.9%, 11.4% 설명하며 갈등대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판단 체계(조혜자, 2001)이므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남녀에게서 공통적으로 동성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이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교체 기간이었다(8.3%). 그러나, 단순히 교체 기간이 길어지면 여학생이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폭력의 위해 정도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서경현, 2004). 데이트 폭력 자체에 대한 평가(빈도, 강도 등)가 있어야만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성이 사용하는 폭력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장희숙, 조현각, 2001), 교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심리적인 폭력 사용이 증가하였을 수 있다. 또는 갈등 상황이 되면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학생도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외부도움 요청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Hendy et al., 2003).

교제 기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눠 실시한 위계적 중다회귀에서 설명력이 보다 큰 변인들이 발견되었다. 교체 기간이 짧은 남녀의 갈등대처행동은 성 고정관념과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아버지와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신념 체계를 갖는 것) 및 갈등적 독립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은 남학생의 회피 행동 중 12.5%를 설명하고 있다. 교체 기간이 짧은 경우, 성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학생은 손쉽

게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학생의 경우,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은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만을 변인으로 했을 경우 21.2% 예측되고,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변인이 더해지면 27.5%가 예측된다. 교제 초기의 남학생의 갈등 대처 행동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제 기간이 짧은 여학생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이 여학생의 갈등 대처 행동을 비교적 높게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성인기 초기의 분리-개별화 단계에서 자아를 부모와 구분 짓기 위하여 자신만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과정 중 독립이 상대적으로 쉬운 대상인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성과의 만남의 초기 단계에서 여학생이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불안, 불신, 분노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즉,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잘되어 있다면 비효율적인 갈등대처 행동을 덜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 중 교제 기간이 긴 순서로 상위 25%에 속하는 남학생의 갈등대처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 남성은 자신이 선택한 이성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바탕이 되어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정도가 높아지게 돼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제 초기에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단독 6.3%,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과 같이 27.5%)였다면, 교제 기간이 긴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회피 행동과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가장 잘 설명하게 된다. 이는 심리적 독립이 비교적 쉬웠던 아버지보다, 애착의 대상이었던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천천히 진행되어서 교제 기간이 일정 흐른 후에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Hoffman(1984)의 연구에서와 같이 갈등적 독립이 높아질수록, 이성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회피 행동이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한 가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이성적 대처 행동을 성 고정관념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본 연구자의 예측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성 고정관념은 여성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더 확립하도록 강요되는 부분도 있다(조혜자, 2001). 이성 교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 고정관념이 높은 대상(남자 친구)과 접촉하면서 암묵적으로 성 고정관념을 더 수용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쉽게 변하지 않는 성 고정관념이 교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측력을 더 얻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집단을 일정 기간 연구하여 교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것을 정리하면, 개인의 갈등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 고정관념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이성 관계의 적응에 가장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이성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결과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조사 대상이 성인기 초기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인기 초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정도가 가장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척도의 유효성이 입증된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연령 분포도 한정되어 있으며, 양친이 모두 생존하여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인기 초

기 남녀 대학생의 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나, 개인적인 발달 단계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숫자로만 그것을 구분 짓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편 부모 가정이 늘어 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 응답자들이 대학생들에 국한되어 성인기 초기의 남녀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연애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양쪽의 응답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응답을 조사하였으므로 상호간에 발생하는 영향력은 고려되지 않았다. 결과에서 나타난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예측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교제 기간을 제외하면 사용된 변인 모두 개인적인 환경(부모의 갈등, 심리적 독립,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 내에 존재하는 관계 만족도 등과 같은 변인을 반영하는 척도는 배제되었다. 이런 이성 관계 내 변인(interpersonal variables)들은 데이트 폭력과의 상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진 않았지만 적절한 전후 관계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Lewis & Fremouw, 2001). 향후 연구에서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갈등 대처 행동(특히 데이트 폭력)을 예측하는 설명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보고식 검사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경우 설문이 인쇄된 설문지가 아닌 온라인 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또 설문의 문항 수가 많았고, 심리적 독립 척도의 경우 동일한 문항이 어머니가 아버지로 바뀐 형태로 반복되어 응답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적지 않은 자료들이 배제되어야 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의 제한(나이 및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하여 일반화에 어려

움은 있을지라도 가장 보편적인 성인기 초기 대학생들만의 자료를 얻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편입이나 휴학 등으로 인해 연령의 분포가 다양하였다. 또, 평균 연령이 본 연구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인기 초기에 새로운 발달 단계를 밟고 있는 그 순간의 자료로써 활용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둘째, 지금까지 대부분 심리적 독립 척도는 대학생활 적응이나 진로 결정 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초기의 발달 과제인 심리적 독립이 이성 교제에서 발생하는 갈등 대처와도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이는 Hoffman(1984)이 심리적 독립과 이성 관계의 적응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한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척도가 좀 더 확장되어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꼽은 진로 문제와 이성 문제(이진화, 김태희, 2001)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갈등대처행동 연구는 주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 폭력과 연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성인기 초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갈등대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단순한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데이트 중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가족과 부모에 중심을 두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Hendy et al., 2003). 부부가 아닌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데이트 폭력의 예방을 추구하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부부 폭력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안녕한 가정을 만들어 그들의 자녀가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고향자, 강혜원(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77-293.
- 권영옥,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P)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경미, 양혜영(2005). 성역할 개념의 발달과 분화: 다차원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20.
- 김동일(1991).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 김순기, 유영주(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 김은영(1991). 한국인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1998). 고등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대인거리 및 진로 성숙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04).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모형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영, 최상진(2004). 아내폭행 원인에 대한 통합적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77-95.
- 남순현, 한성열(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05-523.

- 박영숙, 김영인, 박연환(1998).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고정관념에 대한 비교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1), 51-63.
- 박유정(2000). 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성역할정체감 및 자기의식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운(2007). 미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 인지와 갈등대처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5), 51-61.
- 박찬주(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희정, 조혜자(2004).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83-106.
- 백주현(2006). 대학생의 인구 통계적 변수, 데이트 관련변수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데이트 폭력 경험의 차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경현(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서경현, 안귀여루(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77-96.
- 손희정(2007). 심리적 독립수준과 성역할 정체감, 성 고정관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경애(2003). 여대생의 이성교제 중 갈등표출행동 유형과 영향 요인,
간호과학, 15(1), 50-60.
- 안귀여루(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안귀여루(2006).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과 건강;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6-47.
- 유가호(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127-144.

- 유만수(2000). 성장기 부부폭력관찰경험, 성 역할 인식,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정도가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가정폭력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관용, 김기중, 박영신(2005). *기초심리통계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경민(2004).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희, 정문자(2005). 대학생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이성파트너와의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3(2),
33-45.
- 이영선(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 김태희(2001). 대학생들의 고민과 대처책략.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33(2), 1-10.
- 이현주(1996). 부부의 자아분화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희숙, 조현각(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정문자, 이종원(2003).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4.
-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19.
- 조수진(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유리, 김정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조혜자(2001).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07-125.
- 차정화, 전영주(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한국갤럽(2007). 한국인의 결혼관.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3), 663-672.
- Bernard, J. L., Bernard, S. L., & Bernard, M. L. (1985). Courtship Violence and Sex-Typing. *Family Relations*, 34(4), 573-576.
- Beyers, W., & Goossens, L.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ge,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63-382.
- Bickham, N. L., & Fiese, B. H. (1997). Extension of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2), 246-250.
- Bradbury, T. N., Cohan, C. L., & Karney, B. R. (1998). 'Optimizing longitudinal research for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marital

- dysfunction,' in Bradbury, T. N. (Eds),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9-311.
- Crockett, L. J., & Randall, B. A. (2006). Linking adolescent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to the quality of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conflict tac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5), 761-780.
- Davies, P. T., & Lindsay, L. L. (2001). 'Does Gender Moderate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in Grych, J. H., & Fincham, F. D. (Ed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64-97.
- Feng, D., Giarrusso, R., Bengtson, V. L., & Frye, N. (199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451-463.
- Goldstein, J. H. (1986). Aggression and crimes of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332-354.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ws, W. A., & Mallinckrodt, B. (1998). Separation-Individuation from family of origin and a marital adjustment of recently married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293-306.

- Hendy, H. M., Weiner, K., Bakerofskie, J., Eggen, D., Gustitus, C., & McLeod, K. C. (2003). Comparison of Six Models for Viol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6), 645-665.
- Hergenhahn, B. R., & Olson, M. H. (2003).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Personality*. New Jersey: Pearson.
- Heyman, R. E. (2001). Observation of Couple Conflicts: Clinical Assessment Applications, Stubborn Truths, and Shaky Found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13(1), 5-35.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Hogg, M. A., & Vaughan, G. M. (2002). *Social Psychology*. Gosport: Prentice Hall.
- Larson, J. H., Peterson, D. J., Heath, V. A., & Birch, P.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ysfunctional Family-of-Origin Rules and Intimacy in Young Adult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6, 161-175.
- Lewis, S. F., & Fremouw, W. (2001). Dating Violenc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1), 105-127.
- Luthra, R., & Godycz, C. A. (2006).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17-731.
- Malinosky-Rummell, R., & Hansen, D. J. (1993).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Bulletin*, 114, 68-79.

- Neufeld, J., McNamara, J. R., & Ertl, M. (1999). Incidence and Prevalence of Dating Partner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Dating Practi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2), 125-137.
- Riggs, D. S.,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Rodrigues, L. N., & Kitzmann, K. M. (2007).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3), 423-439.
- Skuja, K., & Halford, W. K. (2004). Repeating the Errors of Our Parents? : Parental Violence in Men's Family of Origin and Conflict Management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6), 623-638.
- Smith P. H., White, J. W., & Holland, L. J. (2003).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 and College-Age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7), 1104-1109.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Abstract

A Study about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parental Conflicts,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the Gender-role Stereotypes and the Conflict Coping Behaviors.

Ja-Won Yu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parental conflicts,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the gender-role stereotypes, and the conflict coping behaviors in young adults.

The three hundred ninety one undergraduate students(male: 206, female: 185) were administered with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the gender-role stereotype scales, and the Conflict Tactics Scales. All the data collected went through reliability test and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gender role contributed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several variables. For example, the male

students were more psychologically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than the female students, and also the male students maintained the more gender-role stereotypes. In addition, the male students used more avoidance as a coping behavior than the female students.

Second, all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conflict coping behaviors. For example, the higher interparental conflicts, the more they used negative feelings and acting out behaviors. In case of the female students, the higher interparental conflicts, the less they used reasoning and more avoidance tactics. Also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nflict coping behaviors in the female students, whereas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father and negative feelings and acting out in male students. For male students, the more they were psychologically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the less they used reliance strategy on others. In addition, for both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higher level of gender-role stereotypes, the less they used reasoning and more avoidance skills. While, the male students with more gender-role stereotypes showed more negative feelings and showed acting out behaviors, the female students with more gender-role stereotypes used more reliance strategy on others. In case of the female students, the longer they maintained their relationship, the more they used more negative feelings and acting out tactics.

Third, the gender-role stereotype was the most useful variable to predict reasoning as a conflict coping behavior. In case of the male students, the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their mothers and the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their fathers explained the reason for reliance on others, and the avoidance was explained by the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their mothers. The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their fathers wa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to predict negative feelings and acting out among the male students. For female students, the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their mothers explained reliance on others, and the gender-role stereotype explained the reason for the avoidance tactics. Also, the negative feelings and acting out variables were predicted by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the mother and the length of relationship.

It was revealed that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and gender-role stereotype were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to predict conflict coping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s. However, the conflict coping behaviors were not fully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as it seems that there are more variables which influence on conflict coping behaviors.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and it will be desirable to include other relevant variables.

부 록

- 부록 1. 인구통계학적 변인
- 부록 2. 성별에 따른 상관계수 차이 검증
- 부록 3. 심리적 독립 하부 척도를 사용한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
- 부록 4. 심리적 독립 하부 척도와 갈등대처행동 간의 상관
- 부록 5. 설문지

< 부록 1 > 인구통계학적 변인

	남성	여성	전체
빈도	206명 (52.7%)	185명 (47.3%)	391명
평균 나이	19.95세	20.11세	20.02세
평균 연애기간	10.12개월	11.36개월	10.71개월

* 갈등의 원인

남성		여성
성격차이 (41.7%)	1	성격차이 (47%)
만남에 대한 불만 (26.7%)	2	만남에 대한 불만 (24.9%)
경제적인 문제 (14.1%)	3	기타 (9.2%)
기타 (8.7%)	4	성문제 (7.6%)
성문제 (3.4%)	5	경제적인 문제 (6.5%)

* 미래의 계획

남성		여성
좀 더 교제후 생각 (57.8%)	1	좀 더 교제후 생각 (49.7%)
결혼하지 않는다 (28.2%)	2	결혼하지 않는다 (41.6%)
결혼을 생각 중 (14.1%)	3	결혼을 생각 중 (8.6%)

* 나이차이

남성		여성
동갑 (59.7%)	1	동갑 (44.3%)
1~2살 차이 (33.5%)	2	1~2살 차이 (28.6%)
5살 이상 (3.9%)	3	3~4살 차이 (17.8%)
3~4살 차이 (2.9%)	4	5살 이상 (9.2%)

* 만나게 된 계기

남성		여성
이미 알고 있던 사이 (63.1%)	1	이미 알고 있던 사이 (54.6%)
친구 소개 (21.8%)	2	친구 소개 (28.6%)
기타 (11.7%)	3	기타 (14.6%)

* 출생 순위

남성		여성
첫째 (52.9%)	1	첫째 (60.5%)
둘째 (41.3%)	2	둘째 (34.1%)
셋째 (4.9%)	3	셋째 (5.4%)

* 종교

남성		여성
없음 (52.4%)	1	없음 (47%)
기독교 (29.6%)	2	기독교 (26.5%)
불교 (10.7%)	3	불교 (15.7%)
카톨릭 (5.3%)	4	카톨릭 (9.7%)

< 부록 2 > 성별에 따른 상관계수 차이 검증

	남(n=206)	여(n=185)	Z관찰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 이성적 대처	.05(.05)	-.15(-.151)	1.97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 외부도움요청	.05(.05)	.06(.06)	-.10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 회피	.10(.10)	0.13(.131)	-.30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13(.131)	0.21(.213)	-.80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 이성적 대처	-.05(-.05)	-.10(-.10)	.49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 외부도움요청	-.15(-.151)	-.09(-.09)	-.60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 회피	-.02(-.02)	-.01(-.01)	-.10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07(-.07)	.02(.02)	-.88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 이성적 대처	.01(.01)	.08(.08)	-.69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 외부도움요청	-.20(-.203)	-.11(-.11)	-.91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 회피	-.07(-.07)	-.08(-.08)	.10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28(-.288)	-.00(-.00)	-2.82
성 고정관념 → 이성적 대처	-.19(-.192)	-.28(-.288)	.94
성 고정관념 → 외부도움요청	.06(.06)	.12(.121)	-.60
성 고정관념 → 회피	.17(.172)	0.34(.354)	-1.78
성 고정관념 →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23(.234)	.10(.10)	1.31
교제기간 → 이성적 대처	.04(.04)	-.02(-.02)	.59
교제기간 → 외부도움요청	.02(.02)	.03(.03)	-.10
교제기간 → 회피	-.01(-.01)	.03(.03)	-.39
교제기간 →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09(.09)	.19(.192)	-1.00

() 표준화된 상관계수, z_r

< 부록 3 > 심리적 독립 하부 척도를 사용한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

전체 (남/여)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갈등	-									
2.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11* (-.01/.19*)	-								
3. 어머니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14** (-.00/.26*)	.60** (.68**/.55**)	-							
4.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04 (-.07/.12)	.79** (.76**/.80**)	.54** (.65**/.45**)	-						
5.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41** (-.38**/-.43**)	-.02 (.18*/-.15*)	-.12* (.04*/-.25**)	-.06 (.11*/-.17*)	-					
6.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28** (.19**/.35**)	.52** (.50**/.56**)	.37** (.41**/.33**)	.41** (.44**/.40**)	-.01 (.17*/-.15*)	-				
7.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28** (.14*/.42**)	.35** (.43**/.31**)	.59** (.64**/.55**)	.30** (.43**/.19**)	-.00 (.14*/.14)	.64** (.70**/.59**)	-			
8.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21** (.13*/.28**)	.47** (.43**/.49**)	.38** (.44**/.32**)	.52** (.54**/.51**)	.02 (.11*/-.04)	.80** (.80**/.80**)	.61** (.69**/.55**)	-		
9.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48** (-.42**/-.54**)	.07 (.24**/-.07)	-.04 (.09/-.16*)	.10 (.18**/.02)	.50** (.53**/.48**)	-.15** (.06*/-.34**)	-.17** (.04*/-.39**)	-.20** (-.04*/-.34**)	-	
10. 성 고정관념	.06 (-.02/.11)	-.04 (-.24**/-.08)	-.16** (-.25**/-.15*)	-.02 (-.20**/-.13)	-.16** (-.11*/-.18*)	-.05 (-.18*/.08)	-.23** (-.29**/-.17*)	-.03 (-.14*/.00)	-.14** (-.17*/-.14)	-

*p<.05, **p<.01

<부록 4> 심리적 독립 하부 척도와 갈등대처행동 간의 상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하부 척도와 갈등대처행동과의 상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기능적 독립(남/여)	태도적 독립(남/여)	정서적 독립(남/여)	갈등적 독립(남/여)
이성적 대처	.04 / -.07	-.07 / -.17*	.00 / -.12	.10 / .19*
외부도움요청	-.25** / -.21**	-.14* / -.09	-.21** / -.12	-.15* / -.1
회피	-.02 / -.15*	.09 / .02	-.04 / -.11	-.26** / -.28**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11 / -.04	-.08 / .09	-.12 / .00	-.22** / -.22**

*p<.05, **p<.01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하부 척도와 갈등대처행동과의 상관>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기능적 독립(남/여)	태도적 독립(남/여)	정서적 독립(남/여)	갈등적 독립(남/여)
이성적 대처	.06 / -.03	-.00 / -.09	-.02 / -.05	.07 / .10
외부도움요청	-.21** / -.17*	-.06 / -.10	-.14* / -.07	-.22** / -.02
회피	-.04 / -.12	-.04 / .03	.03 / -.13	-.18** / -.15*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26** / -.01	-.22** / .05	-.14* / .06	-.30** / -.13

*p<.05, **p<.01

< 부록 5 > 설문지

No. _____

설문지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확실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위하여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최대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이성관계의 갈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인지행동 연구실

지도교수 채규만
석사과정 연구원 윤자원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다음은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모님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1.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			
2.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학교일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다			
4.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			
5.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의 기분이 좀 나아지도록 무언가 할 수 있다			
6.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겁이 난다			
7.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 사이에 낀 것 같아 난처하다			
8.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10.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화를 풀지 못하신다			
11.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조용히 의논하신다			
12.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1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옆에 있더라도 자주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14.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15.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것은 흔히 내탓이다			
16.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17.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 내신다			
18. 우리 부모님은 보통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투신다			
19.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하신다			
20.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나는 대부분 일이 잘 되도록 도울 수 있다			
21.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면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다			

문항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22. 우리 엄마는 아빠와 다투실 때 내가 엄마 편을 들기 원하신다			
23. 부모님이 말하시지 않아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이 내 탓임을 안다			
24. 우리 부모님은 거의 다투시지 않는다			
25.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지신다			
26. 우리 부모님은 평소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다			
27.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큰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28.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이 그만 하시도록 할 수가 없다			
29.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치실까봐 걱정된다			
30.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할 것처럼 느낀다			
31. 우리 부모님은 집안에서 서로에게 자주 잔소리와 불평을 하신다			
32.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적이 거의 없다			
33.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종종 다투시게 된다			
34.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35.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다정하시다			
36.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에게도 소리를 지르실까봐 두렵다			
37.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내 탓이라고 하신다			
38. 우리 아빠는 엄마와 다투실 때 내가 아빠 편을 들기 원하신다			
39.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도중 서로 밀치거나 떠민 적이 있다			
40.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내 자신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41.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이혼을 하실까봐 나는 두렵다			
42. 우리 부모님은 다투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43.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보통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44.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 않으신다			

II 다음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의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다					
2. 어머니는 때때로 나에게 짐(부담)이 된다					
3. 나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을 느낀다					
4. 내가 친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바람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5. 나는 어머니와 항상 불화상태에 있는 것 같다					
6.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를 책망한다					
7. 나는 어머니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8. 성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머니의 태도와 비슷하다					
9.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나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0. 나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11. 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한다					
12.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머니의 생각과 비슷하다					
13. 나는 종종 내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한다					
14. 나는 때때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15. 나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 외롭다.					
16. 남성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머니의 생각과 비슷하다					
17. 나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어머니가 나를 마음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19. 나의 종교적 신념은 어머니의 신념과 비슷하다					
20. 나는 어머니에게 내키지는 않지만 어떤 의무감을 느낀다					
21. 어머니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22.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머니의 생각과 비슷하다					
23. 어머니가 내 용돈을 주신다					
24. 집안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다					
25. 종종 나는 어머니가 나를 좀 더 어른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26. 정직에 대한 나의 가치관은 어머니의 가치관과 비슷하다					
27. 여행계획을 할 때 나는 대체로 어머니에게 자문을 구한다					
28. 나는 어머니에게 가끔씩 화가 난다					
29.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실 때, 그 일은 하기가 싫다					
30. 고독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머니의 태도와 비슷하다					
31.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 어머니와 상의한다					
32. 나는 어머니가 인정해 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한다					
33. 나는 어머니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일 경우에도 어머니의 생각이기에 듣기가 싫다					
34.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지 못할 때 나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35. 환경보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머니의 태도와 비슷하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6.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는다					
37. 어머니가 나를 어머니의 편이 되도록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38. 어머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39. 나는 어머니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한다					
40. 나의 생활신조는 어머니의 생활신조와 비슷하다					
41. 나는 제기되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어머니의 결정대로 한다					
42. 나는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머니와 가까운 것 같다					
43. 어머니는 때때로 나를 당황하게 한다					
44. 때때로 나는 어머니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5. 금전(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머니의 생각과 비슷하다					
46. 나는 방학계획을 세울 때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한다					
47. 나는 때때로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긴다					
48. 나는 어머니의 반응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49. 어머니가 나를 평가할 때면 화가 난다					
50. 이성교제에 관한 나의 태도는 어머니의 태도와 비슷하다					
51. 내가 특별한 옷을 살 경우에 어머니가 옷 고르는 것을 도와 주었으면 한다					
52. 국가방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머니의 생각과 비슷하다					
53. 나는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머니를 찾는다 (또는 전화한다)					
54. 내가 어머니 없이도 살아나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55.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나는 기분 나쁘다					
56.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머니의 태도와 비슷하다					

III 다음은 아버지와 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의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다					
2. 아버지는 때때로 나에게 짐(부담)이 된다					
3. 나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을 느낀다					
4. 내가 친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아버지의 바람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5. 나는 아버지와 항상 불화상태에 있는 것 같다					
6.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책망한다					
7. 나는 아버지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8. 성에 대한 나의 태도는 아버지의 태도와 비슷하다					
9.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나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0. 나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11.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한다					
12.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비슷하다					
13. 나는 종종 내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한다					
14. 나는 때때로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15.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면 외롭다.					
16. 남성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비슷하다					
17. 나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아버지가 나를 마음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19. 나의 종교적 신념은 아버지의 신념과 비슷하다					
20. 나는 아버지에게 내키지는 않지만 어떤 의무감을 느낀다					
21.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22.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비슷하다					
23. 아버지가 내 용돈을 주신다					
24. 집안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고 싶다					
25. 종종 나는 아버지가 나를 좀 더 어른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26. 정직에 대한 나의 가치관은 아버지의 가치관과 비슷하다					
27. 여행계획을 할 때 나는 대체로 아버지에게 자문을 구한다					
28. 나는 아버지에게 가끔씩 화가 난다					
29.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실 때, 그 일은 하기가 싫다					
30. 고독에 대한 나의 태도는 아버지의 태도와 비슷하다					
31.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32. 나는 아버지가 인정해 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한다					
33. 나는 아버지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일 경우에도 아버지의 생각이기에 듣기가 싫다					
34.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지 못할 때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35. 환경보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아버지의 태도와 비슷하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6.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 본다					
37.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의 편이 되도록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38. 아버지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39. 나는 아버지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한다					
40. 나의 생활신조는 아버지의 생활신조와 비슷하다					
41. 나는 제기되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아버지의 결정대로 한다					
42. 나는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버지와 가까운 것 같다					
43. 아버지는 때때로 나를 당황하게 한다					
44. 때때로 나는 아버지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5. 금전(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비슷하다					
46. 나는 방학계획을 세울 때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한다					
47. 나는 때때로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긴다					
48. 나는 아버지의 반응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49. 아버지가 나를 평가할 때면 화가 난다					
50. 이성교제에 관한 나의 태도는 아버지의 태도와 비슷하다					
51. 내가 특별한 옷을 살 경우에 아버지가 옷 고르는 것을 도와 주었으면 한다					
52. 국가방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비슷하다					
53. 나는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는다 (또는 전화한다)					
54. 내가 아버지 없이도 살아나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55.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나는 기분 나쁘다					
56.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나의 태도는 아버지의 태도와 비슷하다					

IV 다음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자는 여자보다 합리적이다					
2.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3. 생활이 곤란하지 않으면 취학 전 아동을 가진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4. 여자가 잘되는 길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남편을 도와서 성공시키는 것이다					
5. 식당 같은 요식업에는 여자가 서비스직을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					
6.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은 동등해야 한다					
7. 대체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사물을 더 객관적으로 본다					
8. 전화교환수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다					
9. 남편과 아내 중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당연히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10. 여자에게도 남자와 똑같이 정치적인 지위나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 남자는 여자보다 창의성이 높다					
12. 여자는 우선 잘생기고 볼 일이다					
13. 여자는 남자에 비해 모험심이 약하다					
14. 여자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					
15. 여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지 못 할 이유는 없다					
16. 여자는 남자에 비해 순종적이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보다는 보수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8. 대체로 기관장이나 행정직은 남자에게 더 적합하다					
19. 여자는 남자보다 성취욕이 약하다					
20. 여자는 남자보다 더 외모에 신경을 쓴다					
21. 여자들은 바지를 입는 것보다 치마를 입는 것이 더 보기에 좋다					
22. 육체적인 매력이나 젊음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23. 직업을 가진 여자는 살림만 하는 여자보다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 갖기가 어렵다					
24.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가정 외에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5. 간호사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다					
26. 남자는 여자보다 공격적이다					
27.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적극성이 모자란다					
28. 여자가 트럭 운전수 같은 직업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					
29. 여자는 남자보다 권위적이지 않다					
30. 남자는 여자보다 지도력이 있다					

V 다음은 갈등 상황에 관한 문장들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평소 이성친구과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이 취하는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2. 친척과 상의하거나 조언을 듣는다					
3. 논쟁의 불씨가 되는 주제는 피한다					
4. 이성친구에게 화를 낸다					
5. 이성친구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6. 종교의 도움을 얻는다					
7. 내 자신을 탓하거나, 팔자 탓으로 돌린다					
8. 이성친구에게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부린다					
9. 서로의 결점이나 갈등을 겪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인다					
10. 이성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준다					
11. 전문가나 책을 통해 도움과 정보를 얻는다					
12.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13. 화난 감정을 거친 행동으로 표현한다					
14. 이성친구와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					
15. 친한 친구나 이웃과 상의한다					
16. 같이 하기로 한 일을 일부러 소홀히 한다					
17. 물건을 집어던질 듯이 한다					
18.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19. 비슷한 상황의 사람에게 충고와 정보를 얻는다					
20. 실랑이 벌이기 싫어 본심과 다른 말이나 거짓말을 한다					
21. 이성친구를 때리는 등 해를 가한다					

9) 귀하가 현재의 이성친구(혹은 최근의 이성친구)와 교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개월

10) 귀하가 현재의 이성친구(혹은 최근의 이성친구)와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친구 소개 (미팅 소개팅 포함) ② 친인척 소개 ③ 사이버 채팅
- ④ 이미 알고 있던 사이 ⑤ 기타 ()

11) 귀하와 현재 이성친구(혹은 최근의 이성친구)와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동갑 ② 1~2살 차이 ③ 3~4살 차이 ④ 5살 이상 차이

12) 귀하는 현재 이성친구(혹은 최근의 이성친구)와의 향후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을 생각 중이다
- ② 좀 더 교제 후 생각하겠다
- ③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13) 현재 이성친구(혹은 최근의 이성친구)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인 문제(데이트 비용 등)
- ② 성격 차이
- ③ 성 문제(스킨십, 성관계 등)
- ④ 가족 문제(가족의 반대 등)
- ⑤ 친구 문제(친구의 반대 등)
- ⑥ 만남에 대한 불만(횟수 및 공유 시간 등)
- ⑦ 기타 ()

많은 문항들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빠뜨린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게 되면 열심히 설문에 응해주신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